광주 지역 불교계 내홍 '이젠 끝'

11월 20일 광주불교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 연광 스님

그동안 내홍을 앓던 광주지역 불교계를 이끌 광주불교연합회가 창립된다.

승가단체인 광주불교연합회(가칭)는 11월 20일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현재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준비위를 구성하고 연합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광 스님은 "벌써 여러 해 승가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종단을 초월해 많은 사찰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불교의 중심적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사실 광주불교계는 3년 동안 심한 내홍을 앓고 있었다. 기존 광주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던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이하 사암연합)가 파행을 거듭하며 2년 동안 봉축행사 마저도 치러지지 못했다. 여기에 2012년 봉축행사를 끝으로 회장을 맡았던 향림사 혜향 스님이 사퇴를 하고, 이후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연합회 측의 몇몇 스님에 대한 불신으로 광주지역 주요사찰들의 협조가 미비했다. 전체 168개 회원사찰로 구성된 총회가 대다수 사찰들이 참여하지 않으며 성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암연합회 사무실도 상근자 없이 방치되며 일반 불자들의 발길도 끊어져 버렸다.

이에 광주지역 주요사찰 주지 스님들은 회동을 갖고 광주지역 대표단체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연광 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는 세 가지의 중점사항을 지닌다"며 광주불교연합회의 세가지 방향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의 방향 중 첫 번째는 '승가의 화합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불교연합회' 이다. 이는 종단을 초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고자하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광주불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광주불교연합회' 로 호남불교를 대표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전통문화, 예술, NGO, 복지, 생명, 환경, 종교간 화합, 명상, 해외구호사업 등 이미 광주 불교계가 적극적 사업들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며, 향후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2년동안 파행을 거듭하며 봉축행사를 치르지 못했던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번 창립으로 지역전법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사암聯 파행으로 봉축행사 무산
광주 주요사찰 연합체 구성 결의
대중·수행·지역공동체 비전 밝혀

이어서 마지막은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불교연합회' 로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육성되는 만큼 광주불교연합회가 종교를 넘어 한국불교 1600년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광주지역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이다.

연광 스님은 "여기에 지역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적극적 연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광주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한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텃밭을 일궈 소외계층과 나눔의 삶을 일궈가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불교 문화 정수 한 자리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물전 익산'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물전 12, 익산' 을 개최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 익산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2014년 2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1부 〈마한의 중심〉, 2부 〈백제의 고도〉, 3부 〈부흥의 터전〉, 4부 〈전라도의 첫 고을〉 등 구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 익산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소개된다.

특히 마한의 중심이자 백제의 고도로서 익산의 위상을 살펴보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백제 멸망 이후 부흥을 꿈꾸며 익산에 모여든 보덕국과 백제의 계승을 공언했던 후백제와 익산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1부 〈마한의 중심〉에서는 고조선(古朝鮮) 준왕(準王)의 남천지(南遷地)가 금마(金馬), 즉 익산인가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청동기와 철기를 살펴볼 수 있다.

2부 〈백제의 고도〉에서는 백제의 지방거점에서 새로운 왕도, 혹은 별도로 발전해가는 삼국시대 익산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백제 무왕이 조성한 궁성인 왕궁리 유적, 왕실사찰 제석사(帝釋寺), 새로운 신앙이자 통치이념인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 을 구현한 미륵사지, 무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품 등을 통해, 익산이 백제의 '계획도시' 이자 '또 다른 왕도' 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부 〈부흥의 터전〉은 익산을 근거로 재기를 꿈꾸며 보덕국을 세운 고구려 유민과 '금마산(익산)에 세워진 백제 의자왕의 숙분을 풀겠다.' 며 백제의 계승을 공언한 견훤(甄萱 867~936)의 후백제와 관계된 전시품을 살펴볼 수 있다.

4부 〈전라도의 첫 고을〉은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익산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는 코너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 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강경판과 무왕의 치아로 추정되는 쌍릉 출토 치아 등도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기념하는 특별강연회와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저명한 청동기 연구자인 이건무 前문화재청장이 '한국의 청동기문화—전북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11월 6일 오후 2시 강연을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 개산대재 및 주지 취임법회

1414주년을 맞은 이날 개산대제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등 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대표적인 미륵성지인 김제 모악산 금산사(주지 성우)가 10월 26일 개산대재와 함께 제15대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1414주년을 맞은 이날 개산대제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박성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개산대제는 조사전과 부도전에서의 다례재에 이어 육법공양, 예불, 축원, 삼귀의, 연혁 및 역대조사스님 행장소개, 제15대 주지 성우 스님의 대회사 및 취임사, 법어, 축사,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금산사 주지로 취임한 성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항상 함께하셨던 조사 스님, 태공 월주 대종사님, 그리고 선배 주지 스님께서 걸어갔던 길을 따라, 오늘 새로 내딛는 길이 험난하고 외롭더라도 '위법망구(爲法忘軀)' 의 정신으로 감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이들의 발심 정진이 대한민국과 온 우주의 상생, 정토, 복지, 평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전북지역의 불교발전과 포교에 앞장서 활동한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박중근 前익산불교신도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식에 이어 관등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흥천사 지환 스님, 라오스 초교 건립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사진 오른쪽)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초교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 흥천사가 지구촌공생회와 손을 맞잡고 라오스에 초등학교를 건립한다. 대한불교보문종 흥천사(회주 지환)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0월 26일 금산사에서 라오스 지환 던룸초등학교 건립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개교한지 20년이 된 던룸초등학교는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천정이 무너지고 서까래가 썩어가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던룸초교에서 공부하는 77명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소식에 지환 스님의 상좌인 법송 스님과 법묵 스님이 지난 9월 현지를 방문해 실상을 파악하고 1억 5000만 원의 후원을 결정했다.

지구촌 공생회 사무처장 화평 스님은 "후원 협약 체결 이후 3년 동안 교실 7칸, 화장실 4칸, 샤워실 1칸, 물탱크, 도서관, 학교울타리와 교문을 건립할 예정"이라며 "건립 이후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는 성인 문자해독률이 약 58%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나라로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04년 지부를 개설한 이후 청소년센터 1곳, 초등학교 7곳, 유치원 1곳을 건립하고 이동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계 주도로 고창에 어린이집 개관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실시한다.

고창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는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이 10월 31일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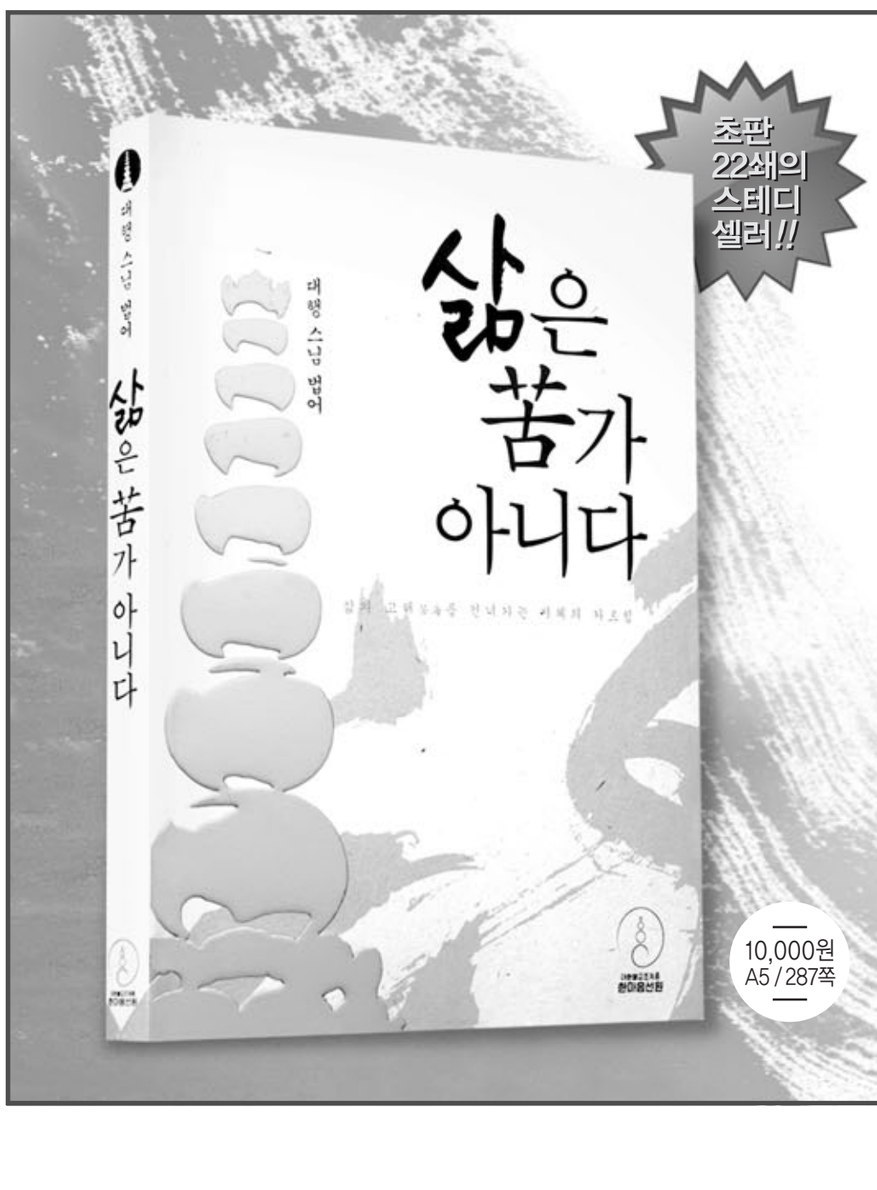
전북고창 뉴타운 내에 자리잡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은 대지 6,735㎡에 연건축면적 674㎡으로 보육실, 유희실, 홀 및 야외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집은 만5세 이하의 어린이 85명을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실시한다.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경련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억 7400만 원이 투입됐다.

법만 스님은 10월 24일 "아동들의 정서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한편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보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개관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고창군 내에 불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향후 청소년동아리방, 공부방, 상담실, 문화교실 등 청소년의 여가와 공부 활용 공간은 물론 귀농 지원센터, 농특산물 홍보관, 북카페 등을 설립하여 영 ·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포교와 복지, 문화를 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푸드뱅크 등 7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